

---

#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채 완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 1. 도입

흔히 우리말 표현의 섬세함을 이야기할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예로 든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전통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독특한 표현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통신 언어나 TV 자막과 같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형성된 언어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찌 보면 한자어와 외래어에 밀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는데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르네상스를 맞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매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휘 부류이지만 한편으로는 꽤 다르다. ‘의성어’와 짝이 되는 ‘의태어’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주목을 받아 왔으며,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막연하게 하나의 부류로 묶여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의성어와 의태어는 공통점 못지않게 다른 점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부류로 뭉뚱그릴 대상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특성 중에서도 그 차이에 중점을 두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1)

## 2. 지시의 필연성

의성어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소리를 지칭하거나 묘사하기 위해 되도록 그 소리에 가까우면서 해당 언어의 음운과 음절 구조에 맞도록 만든 말을 가리킨다. 지칭이란 “창밖에서 ‘ 짹짹 ’ 하고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 지?”라고 인용 형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묘사란 ‘참새가 짹짹 노래한다.’와 같이 부사어로 사용되어 서술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꾸며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해당 언어의 음운, 음절 구조에 맞도록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성어는 성대모사(聲帶模寫)와 구별된다.

의태어는 비청각적인 감각을 청각 인상인 말로 바꾼 것이다. 시각, 촉각, 미각, 통각(痛覺) 등을 통해 감지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로서,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擬聲語)’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형태를 묘사한다 하여 ‘의태어(擬態語)’라 부른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별 지어 주는 제일차적 차이는, 의성어는 소리를 소리로 표현하는 데 반해 의태어는 소리 아닌 것을 소리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의태어의 지시 대상은 소리가 아니므로 어떻게 해도 지시 대상과 일치시킬 수는 없는 데 반해, 의성어는 해당 언어 사회의 화자들에게 지시 대상인 소리와 같거나 매우 가까운 소리로 인식된다. 의성어도 기본적으로는 자의적 기호로서 사회적 약속의 산물이지만, 적어도 지시 대상이 언어 형식과 같은 ‘소리’로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대상과 언어 형식과의 연합의 필연성은 일반어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종소리’를 말하기 위해 그 ‘소리’를 인간의 음성으로 바꾸어 들려주는 것이 의성어이므로, 인간의 청각 기관과 발음 기관이 같은 한 여러 언어 간에 의성어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의태어는 비청각적인 감각을 소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대상과 언어 형식의 관계가 전적으로 자의적(arbitrary)이다. 움직임이나 상태를 청각화해서 소리로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간접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시 대상과 언어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 의태어가 비슷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두 언어에서 같은 의미의 의태어가 비슷한 음성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이

1) 이 글의 논지와 예들은 주로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채완, 2003, 서울대출판부)에서 가져왔다.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거나 차용, 계통적 유사성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예컨대, 의태어인 ‘흔들흔들’이 동사 ‘흔들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흔들다’라는 동사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은 발생 동기 상 우연의 산물이며, 따라서 ‘흔들흔들’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가 꼭 그러한 음성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필연성도 없다. ‘흔들흔들’은 동사 ‘흔들다’와 형태적 유연성(有緣性)은 있지만 그 음성 형식과 의미 사이에는 전혀 필연성이 없어서, 지시의 필연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의태어는 ‘나무’나 ‘사람’과 같은 일반 어휘와 다름없다.

### 3. 음운 교체 및 반복

의성어와 의태어 중에는 모음이나 자음의 교체에 따라 어감의 차이를 갖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형화된 음운의 교체가 두드러진 외형상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음운 교체의 양상에 있어서도 의성어와 의태어는 다르다. 의태어는 원칙적으로 모두가 음운 교체에 의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지만, 의성어는 음운 교체가 필수적이지 않다.

다음 (1)은 음운 교체를 하는 의성어들이고 (2)는 음운 교체를 하지 않는 의성어들이다. (1), (2)를 보면 전형적인 의성어는 오히려 음운 교체를 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 (1) 꾸르륵/꼬르륵, 꿀깍/꿀걱, 덜렁덜렁/달랑달랑/떨렁떨렁/떨랑떨랑, 두런 두런/도란도란, 득득/닥닥, 뚜덕뚜덕/또닥또닥, 버석버석/바삭바삭/빠석빠석/빠삭빠삭, 부스럭부스럭/바스락바스락, 부드득/보드득/뿌드득/뽀드득, 서걱서걱/사각사각
- (2) 귀툰귀툰, 까옥, 각각, 꼬꼬댁, 꼬끼오, 피꿀피꿀, 꿀꿀, 끼룩끼룩, 뚝뚝 뚝뚝, 맴맴, 멍멍, 멍멍, 부엡, 빠악빠악, 아옹, 어흥, 음매, 지지배배, 킁킁, 딸꾹, 웅성웅성, 덩더꿍, 따르릉, 부릉부릉, 재각재각, 칙칙폭폭

여기서 음운 교체에 따른 어형의 분화가 일반 어휘에는 없고 의성어 의태어에만 있다든가, 또는 모든 의성어 의태어가 가진 특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3), (4)와 같이 일반 어휘나 색채어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의 어휘 분화는 활발하다. 이런 점에서, 음운 교체에 의한 어형 분화를 의성어 의태어의 공통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거죽-가죽, 맛-맛, 머리-마리, 끼풀-까풀, 꺾다-깎다, 넘다-남다, 곧다-곧다
- (4) 누렇다-노랗다, 희멀겑다-해말겑다, 퍼렇다-과랗다, 발깁다-빨깁다, 보양다-뽕양다

소리 중에는 일회적인 것도 있고 반복적인 것도 있으므로 모든 의성어가 반복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묘사의 대상이 되는 소리가 반복음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는 ‘멍멍, 짹짹, 삐악삐악’ 같이 반복형을 취하고, ‘음매, 꼬끼오’ 같이 외마디로 나는 소리의 부류는 주로 단독형으로 사용된다. 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단독적인가 반복적인가에 따라 단독형 혹은 반복형이 선택되어, 호박 하나가 떨어지면 ‘쿵’이고, 둘이 연달아 떨어지면 ‘쿵쿵’이 된다. 그러나 의태어는 대체로 반복형을 이루므로, 음운 교체와 마찬가지로 반복도 의성어보다는 의태어의 특징이며 의성어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반복 여부가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각운형 형성

의성어는 지시 대상 자체가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의태어는 일정한 형태, 즉 어말음이 반복되어 각운형(rime combination)을 형성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의미의 연합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로써 의태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들간들, 건들건들, 보들보들, 부들부들, 한들한들, 흔들흔

들, 구들구들, 고들고들, 야들야들, 후들후들, 오들오들’ 등과 같은 한 무리의 의태어들을 보자. 이들은 ‘건드리다>건들건들>간들간들, 부드럽다>부들부들>보들보들, 흔들다>흔들흔들>한들한들, 굳다>구들구들>고들고들’ 등과 같이 그 기원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도 있고, ‘야들야들, 후들후들, 오들오들’ 등처럼 그 기원을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의태어가 의태어답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형태적 특징이 감지된다. ‘흔들->흔들흔들’처럼 어간이 반복되거나, ‘부드럽->부들>부들부들’처럼 어간 일부가 절단된 형태가 반복되거나, 또는 ‘굳->구들>구들구들’과 같이 일정한 접미 형태가 첨가되어 반복되거나, 아니면 ‘야들야들’과 같이 그 기원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들’과 같은 특정한 음절로 끝나는 각운형을 이룸을 볼 수 있다. 의태어의 각운을 구성하는 형태들을 몇 가지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5) 근: 두근두근, 사근사근, 소근소근, 슬근슬근, 불근불근, 조근조근, 차근차근, 추근추근  
 글: 동글동글, 방글방글, 부글부글, 싱글싱글, 이글이글, 지글지글, 쭈글쭈글  
 국: 노국노국, 말국말국, 몽국몽국, 발국발국, 방국방국, 상국상국, 지국지국  
 끈: 따끈따끈, 뜨끈뜨끈, 미끈미끈, 불끈불끈, 지끈지끈, 후끈후끈, 화끈화끈  
 링: 덜렁덜렁, 물렁물렁, 설렁설렁, 울렁울렁, 주렁주렁, 출렁출렁, 치렁치렁, 헐렁헐렁  
 실: 굵실굵실, 넘실넘실, 둥실둥실, 비실비실, 몽실몽실, 방실방실, 토실토실  
 적: 굵적굵적, 넓적넓적, 뜯적뜯적, 몽기적몽기적, 미적미적, 비비적비비적  
 질: 간질간질, 구질구질, 깨질깨질, 꿈질꿈질, 반질반질, 부질부질, 어질어질

그러나 앞의 (2)에서 보았듯이 의성어 중에는 각운형을 이루지 않고 형

태가 불규칙한 예들도 많다. (1)과 같이 각운형을 이루는 의성어들은 대부분 의태어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태어의 각운형에 유추된 것으로 해석된다.

## 5. 의성어 의태어의 분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질성이 적지 않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그동 안 언제나 하나로 묶어서 인식하고 함께 다루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많은 의성어가 동시에 의태어라는 점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어떤 소리가 발생될 때는 대부분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나의 의성어가 소리나 움직임, 또는 상태 등을 미분화(未分化)된 전체 장면으로서 공감각적으로 묘사한다. 다음 (6), (7)에서 하나의 형태가 ㄱ에서는 의성어, ㄴ에서는 의태어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 (6) ㄱ. 바람에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ㄴ. 문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 (7) ㄱ. 커다란 풍선이 뽕 하고 터졌다.  
    ㄴ. 양은 냄비에 구멍이 뽕 뚫어졌다.

소리란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리어 귀에 들리는 것’(『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움직임이 있게 마련이다. 즉 의성어에는 의태어적 요소가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의성어는 의성성과 의태성을 함께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자연스럽게 의태어로 의미가 확장된다. 반면에 움직임 중에는 소리가 없는 것도 있으므로 의태어가 반드시 의성성을 동반할 필요는 없다. 의성어가 의태어로 기능이 확장되면 전형적인 의태어의 구성 방식인 반복과 음운 교체의 틀을 따라가게 된다.

의성어가 음운 교체에 의해 새로운 어형을 분화시키는 경우에도 소리 자체보다는 상황이나 움직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인 ‘하하’는 사전에 ‘입을 벌리고 거리낌

없이 크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하하’는 ‘허허, 호호, 후후, 히히, 해해’ 같은 모음 교체형을 갖는다. ‘호호’는 ‘입을 둥그랗고 작게 오므리고 간드러지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허허’는 ‘입을 둥글게 벌리고 거리낌 없이 크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으로 뜻풀이되어 있어, ‘하하’와의 차이가 의성적이기보다는 의태적임을 보여 준다. 즉 소리의 차이가 아니라 모양이나 상황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모음 교체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 6. 마무리

이 글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성어는 언어 형식과 의미가 비교적 필연적으로 연합하지만 의태어는 그 연합이 전적으로 자의적이다.

둘째, 의태어는 음운 교체와 반복에 의해 새로운 어형을 과생시키지만 의성어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셋째, 의태어는 독특한 어말음에 의해 각운형을 이루지만 의성어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넷째, 의성어는 의태성을 동반하여 의태어로 쉽게 의미가 확장되지만 의태어는 의성어로 확장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의성어는 언어 형식과 의미의 연합이 상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범주의 특성을 찾을 수 있고, 의태어는 반복과 음운 교체, 각운형의 형성이라는 형태적 특성에 의해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